

고등학생이 인식하는 친구지지, 가족건강성과 자기통제력의 관계

홍승화* · 신효식** · 이선정**¹⁾

전남대학교 가정교육과* · 전남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The Relationship among Peer Support, Family Strength and Self-Control in High School Students

Hong, Seunghwa* · Shin, Hyoshick** · Lee, Seonjeong**¹⁾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Human ecology Research Institut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 among peer support, family strength and self-control. This subjects were the 438 high school students living in Gwangju. Data were analyzed with SPSS 18.0 program.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the high school students' peer support and family strength scores were higher than median(3,00). Also, long-term satisfaction pursuit scores were higher than median and the immediate satisfaction pursuit scores were lower than median. Second, peer support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sex. Family strength showed partially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standard of living and parents' education achievement. Self-control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sex and father's education achievement. Third, family strength and the self-control showed significant correlation. Forth, the high school students' self-control was influenced by role sharing and problem solving, communication and family bonding and fathers' education achievement. And the high school students' self-control was explained about 15% by these variables.

In conclusion, the role of home is important, it is necessary to enhance the education of financial stability and to improve self-control in order to help the students enhance solidity among family and communicate affirmatively.

Key words: 고등학생(high school students), 친구지지(Peer Support), 가족건강성(Family Strength), 자기통제력 (Self-control)

1) 교신저자: Corresponding Author: Lee, Seonjeong, 77 Yongbong-ro, Buk-gu, Gwangju, 500-757, Republic of Korea
Tel: 062-530-2520, Fax: 062-530-2529, E-mail: homedujnu@naver.com

2) 본 논문은 2013년도 석사학위논문 의 일부임.

I. 서론

올바른 자기통제력의 형성은 미래를 위한 진로선택의 중요한 시기에 놓인 청소년들에게 자아를 형성하고 자기 자신의 삶의 질을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하는 능력을 높이는 데 큰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가치관 형성에도 중요한 요인이 된다. 자기통제감이란 본인이 사건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것과 관련된 신념으로, 내적 상태나 행동을 결정하고, 환경에 영향을 미치며,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라 할 수 있다(Wallston, Wallston, Smith, & Dobbins, 1987). 또한 미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즉각적인 욕구를 지연시키거나 통제하는 것으로 새로운 목표를 지향하기 위해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이다(Kanfer, 1997).

자기통제력이 있는 사람은 지금 당장의 필요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먼 미래를 내다보고 현재의 충동을 이겨내는 사람을 의미한다(Muraven, Rosman, & Gagne, 2008). 자기통제력이 낮은 사람은 스트레스원이 있을 때 자동적이면서도 습관적인 반응을 보이기 쉽기 때문에(Muraven et al., 2008), 자신에 대한 통제를 피하거나 쉽고 즉각적인 쾌락을 얻고자 차별적으로 시간과 장소 및 만나는 사람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으며, 그 결과 이들은 자기통제력이 높은 사람들에 비해 위험한 시간과 장소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진다(Kim & Min, 1996). 게다가 충동적이고 문제행동 성향을 가진 친구들의 유혹에 빠지기 쉽고, 거절을 잘 하지 못하며, 인지사회적 능력의 부족으로 인해 경험하게 되는 좌절이나 실패를 보상받기 위해, 또는 친구들의 권유에 따라 문제에 가담함으로써 소속감을 가지려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Kim, 1998). 또한 이러한 성향은 충동적인 범죄 행위 뿐만 아니라 흡연, 음주, 약물오남용과 같은 다양한 행위들을 하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Kim & Min, 1996). 따라서, 청소년들의 일탈행위와 밀접하게 관련된 자기통제감을 고등학교생들을 대상으로 살펴보는 것은 청소년의 바람직한 생활태도와 미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역량과 관련되므로 의미가 있다고 본다.

청소년 시기에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 다양한 사회·정서적 발달을 경험하게 되고, 또래관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강

조되며 친구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지의 영향력도 크다(Kim & Lee, 2004). 부모와의 상호작용이 점차 감소되므로 친구로부터의 지지는 가족과 사회를 연결하는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불안정한 정서를 안정시킬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기에는 우정, 가치 확인, 친밀감 등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부모보다는 친구들에게 더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Furman & Buhrmester, 1985) 친구의 지지는 친구관계 형성을 좌우할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정서적 안정과 바람직한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정서적 지원은 자아개념과 인지발달에도 기여하며 이는 성인기 이후의 사회적 적응에도 영향을 미친다(Bagwell, 1998). 이처럼 청소년기에 친구지지가 중요하게 언급되는 이유는 청소년들이 부모로부터 벗어나 자율성과 독립성을 획득하려는 과정에서 친구를 통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 노력하기 때문이다(Kim & Lee, 2004). 실제로 친구지지는 아동과 청소년의 스트레스 대처에 도움이 되며(Lee & Shin, 1997; Han & Yoo, 1996), 학습능력에도 도움이 된다(Jang & Kim, 2011). 친구로부터의 정서적 지원은 자아개념과 인지발달에 기여하며 이는 성인기 이후의 사회적 적응에도 영향을 미친다(Bagwell, 1998). 그러므로 청소년기의 친구지지는 청소년의 정서적 안정 및 개인의 심리적 특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어 자기통제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가족의 틀 안에서 자라나고 성장하는 청소년들에게 가족은 많은 영향을 미친다. 청소년 연구에서 가족환경 특성은 친구 관련 특성 못지않은 중요한 연구 변인이다. Gottfredson과 Hirschi는 개인의 자기통제력에 가정에서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였는데 부모의 자녀에 대한 따뜻한 애정과 보호 및 지원은 자녀들이 감각적이고 즉각적인 욕구를 억제하고, 타인의 의도와 기대를 이해하게 되며, 스스로 자신의 장기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며, 이러한 욕구 및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폭력이나 기만 등의 수단을 사용하지 않게 한다고 하였다(Ki, 2011). 가족 간에 불화가 많고, 부모의 자녀에 대한 감독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며, 부모 자녀 간 의사소통이 비개방적이지 못한, 역기능적 심리적 환경에서 자란 청소년들은 낮은 자기통제력을 가지게 되고 이러한 청소년들은 친구의 가치나 행동에 동조 압박을 더 받게 되어 문제행동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가지게 된

다(Nam & Ok, 2001). 특히, 가족건강성의 요소들은 청소년의 발달과 환경적응에 매우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건강한 가족관계의 상호작용을 통해 청소년들은 정서적인 안정감과 소속감, 만족감을 갖게 되므로 개인의 심리적 발달에도 연관이 됨을 짐작할 수 있다. Nam과 Ok(2001), Cho와 Do(2011)는 청소년의 자기통제력 형성 배경과 향상에 가족과 친구의 영향이 크다고 하였고 Kim과 Park(2001), Park, Kim과 Min(2002)은 부모나 친구 등 의미있는 타인들과 주고받게 되는 사랑·보호·수용 등의 사회적 지지가 많을수록 청소년의 사회적응력과 심리적 적응이 향상된다고 하여 청소년기 심리적 발달에 친구와 가족이 미치는 영향력을 강조하였다.

Gottfredson과 Hirschi의 자기통제이론에 의하면, 자기통제력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부모의 학력, 가정의 소득수준과 같은 가정의 구조적 요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으나 일부 연구(장혜정, 2008; 기광도, 2011)에서 그 영향력이 일치되게 나타나지 않아 이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그동안 자기통제력은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과의 관계성에 대한 연구(Ahn & Kim, 2004; Jeon & Seo, 2006; Kim, 2002; Shim, 2004; Song, 1998)와 문제행동에 관한 연구(Baek, 2009; Ko, 2005; Kwon & Lee, 2007; Park, 2012)가 주로 이루어져왔다. 이들 연구들은 자기통제력이 높을수록 중독과 문제행동의 가능성이 낮아진다고 보고하면서 청소년의 자기통제력 향상을 강조하고 있다. 가족과 자기통제력 및 친구관련 특성을 다룬 연구(Nam & Ok, 2001; Cho & Doh, 2011)는 일부 있으나 자기통제력의 영향을 살펴본 연구에 비하면 자기통제력의 형성요인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적은 편이라고 할 수 있으며, 친구지지와 가족건강성을 함께 살펴본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의 자기통제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되어지는 사회인구학적 변인, 친구지지, 가족건강성을 중심으로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의 결과를 통해 친구지지 및 가족건강성 강화의 필요성을 확인하는 계기를 마련하며, 청소년의 자기통제력을 파악하고 그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고자 한다. 더불어 학교현장에서 가정과교육의 방

향 제안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1) 고등학생이 인식하는 친구지지와 가족건강성, 자기통제력의 일반적인 경향은 어떠한가?
- 2)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고등학생의 친구지지, 가족건강성, 자기통제력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 3) 친구지지, 가족건강성과 자기통제력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 4) 사회인구학적 변인, 친구지지, 가족건강성이 자기통제력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광주광역시 소재 고등학교 2개교의 남, 여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 수집은 2012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하여 실시되었으며 배포된 450부 중 부실 기재된 자료를 제외한 438부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Table 1>과 같다.

2. 조사도구

1) 사회인구학적 변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성별, 생활수준, 부 학력, 모 학력 등 총 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2) 친구지지

친구관계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Lee(2001)의 질문지를

Table 1.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Variables	Category	N(%)
Gender (n=438)	Male	231(52.7)
	Female	207(47.3)
Standard of living (n=424)	High	19(4.5)
	Upper middle	114(26.9)
	Middle	229(54.0)
	Lower middle	50(11.8)
	Low	12(2.8)
Father 's education achievement (n=424)	Middle school and less	7(1.7)
	High School grad	158(37.3)
	University grad	229(54.0)
	Graduate and more	30(7.0)
Mother's education achievement (n=422)	Middle school and less	10(2.4)
	High School grad	226(53.6)
	University grad	162(38.4)
	Graduate and more	24(5.6)

참고하여 Shim(2004)이 재구성한 25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4개의 하위 요인으로 정서적 지지(7 문항), 평가적 지지(6 문항), 정보적 지지(6 문항), 물질적 지지(6 문항)로 구성되었다. 응답방식은 1점에서 5점까지의 Likert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고 있으며, 친구관계가 원만하다고 보았다. 신뢰도는 정서적 지지 .92, 평가적 지지 .90, 정보적 지지 .90, 물질적 지지 .89이다.

3) 가족건강성

가족건강성은 Yoo(2004)의 한국형 가족건강성 척도를 토대로 재구성한 Lee(2009)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가족의 건강성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가족존중 및 애정'에 관한 12문항, '역할공유 및 문제해결력'에 관한 6 문항, '의사소통 및 유대감'에 관한 5문항, '재정적 안정'에 관한 4문항으로 총 27문항으로 구성되어 5점 Likert 척도로 응답하게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이 건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척도의 신뢰도는 가족존중 및 애정 .96, 역할공유 및 문제해결력 .90, 의사소통 및 유대감 .90, 재정적 안정 .91이다.

4) 자기통제력

자기통제력을 측정하기 위한 질문지는 Gottfredson과 Hirschi(1990)의 척도를 토대로 구성한 Kim(1998)의 자기통제력 척도를 재구성한 Nam & Ok(2001)의 자기통제평정척도를 사용하였다. '장기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정도'에 관한 10개 문항과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정도'에 관한 10개의 문항으로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방식은 5점 Likert 척도로 장기 만족 추구 자기통제력은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통제력이 높은 반면, 즉각 만족 추구는 점수가 낮을수록 자기통제력이 높음을 나타낸다.

자기통제력 전체의 값을 도출할 때는 결과 해석의 용이함을 위하여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경향을 나타내는 10개의 문항(척도의 3, 5, 6, 7, 9, 14, 16, 17, 18, 19번 문항)은 역으로 환산하였다. 따라서, 자기통제력 점수 전체 값은 높은 점수가 높은 자기통제를 의미하게 된다. 척도의 신뢰도는 장기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정도 .80,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정도 .83이다.

3.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PC 18.0 프로그램을 이

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고등학생의 친구지지와 가족건강성, 자기통제력의 일반적인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둘째,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친구지지, 가족건강성에 따른 자기통제력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t-test와 ANOVA, Duncan의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셋째, 친구지지와 가족건강성, 자기통제력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 r값을 산출하였다. 넷째, 사회인구학적 변인, 친구지지, 가족건강성이 자기통제력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고등학생이 인식하는 친구지지와 가족건강성, 자기통제력의 일반적 경향

고등학생이 인식하는 친구지지와 가족건강성, 자기통제력의 일반적인 경향을 살펴보면 <Table 2>와 같다.

친구지지는 ‘정서적 지지’가 3.88, ‘평가적 지지’가 3.73, ‘정보적 지지’가 3.69, ‘물질적 지지’가 3.68 순으로 중간값(3.0)보다 높게 나타났다.

가족건강성은 ‘가족존중 및 애정’이 3.87, ‘역할공유 및 문제해결력’이 3.60, ‘의사소통 및 유대감’이 3.50, ‘재정적 안

정’이 3.88로 중간값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들이 가족 구성원간의 상호 존중 및 애정, 서로 간의 역할공유 및 문제해결력, 원활한 의사소통 및 유대관계, 재정적 안정 등 가족의 건강성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가족존중 및 애정, 역할공유 및 문제해결력, 재정적 안정에 비해 의사소통 및 유대감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자기통제력은 장기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정도가 3.26,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정도가 2.68로 나타났다. 자기통제력에서 긍정적인 성향을 나타내는 장기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정도가 중간값 이상의 점수를 보인 반면, 부정적인 성향으로 해석되는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정도는 중간값 이하의 점수를 보였다.

2.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친구지지, 가족건강성, 자기통제력의 차이

1)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친구지지의 차이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친구지지의 차이는 <Table 3>과 같다. 정서적 지지와 친구지지 전체는 성별과 부학력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부학력이 대학원 졸업인 경우 정서적 지지가 높았다. 평가적 지지, 정

Table 2. Examining the general tendency of high school student's peer support and family strengths

N=438

Scale	Variables	M	SD
Peer support	Emotional support factors	3.88	.77
	Evaluation support factors	3.73	.78
	Informational support factors	3.69	.78
	Material support factors	3.68	.80
Family strength	Family respect and affection	3.87	.88
	Role sharing and problem solving	3.60	.88
	Communication and family bonding	3.50	1.03
	financial stability	3.88	.93
Self-control	Long-term satisfaction pursuit	3.26	.61
	Immediate satisfaction pursuit	2.68	.66

Table 3. Examining differences in peer support according to sociodemographic variables

N=438

Variables	Category	N	Emotional support factors	Evaluation support factors	Informational support factors	Material support factors	Peer support
Gender	Male	229	3.73(.74)	3.62(.80)	3.59(.77)	3.54(.78)	3.62(.70)
	Female	207	4.06(.76)	3.84(.74)	3.80(.78)	3.85(.80)	3.89(.69)
	t		-4.66***	-2.92**	-2.86***	-4.14***	-4.06***
Standard of living	High	132	3.97(.74)	3.74(.80)	3.70(.82)	3.68(.84)	3.78(.74)
	Middle	228	3.83(.76)	3.70(.77)	3.66(.76)	3.68(.78)	3.72(.69)
	Low	62	3.84(.84)	3.75(.80)	3.74(.80)	3.67(.84)	3.75(.75)
	F		1.52	.19	.28	.004	.32
Father's education achievement	Middle school and less	7	3.52(.45) ^b	3.52(.74)	3.69(.78)	3.40(.69)	3.54(.52) ^b
	High School grad	157	3.75(.79) ^{ab}	3.63(.76)	3.62(.74)	3.61(.79)	3.66(.69) ^{ab}
	University grad	229	3.94(.76) ^{ab}	3.74(.80)	3.71(.81)	3.71(.83)	3.78(.74) ^{ab}
	Graduate and more	29	4.16(.59) ^a	4.05(.62)	3.97(.65)	3.92(.73)	4.03(.54) ^a
	F		3.88**	2.61	1.65	1.56	2.76*
Mother's education achievement	Middle school and less	9	3.48(.97)	3.44(.62)	3.46(.63)	3.52(.80)	3.48(.65)
	High School grad	226	3.84(.78)	3.67(.79)	3.60(.79)	3.65(.79)	3.69(.72)
	University grad	161	3.93(.71)	3.79(.74)	3.80(.74)	3.71(.78)	3.82(.66)
	Graduate and more	24	3.92(.81)	3.67(.86)	3.75(.72)	3.92(1.03)	3.75(.78)
	F		1.29	1.21	2.53	.54	1.43

* p<.05, ** p<.01, *** p<.001, Duncan grouping : a>b>c

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는 성별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2)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가족건강성의 차이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가족건강성의 차이는 <Table 4>와 같다.

Table 4. Examining differences in family strength according to sociodemographic variables

N=438

Variables	Category	N	Family respect and affection	Role sharing and problem solving	Communication and family bonding	Financial stability	Family strength
Gender	Male	230	3.94(.81)	3.66(.84)	3.52(.98)	3.87(.93)	3.79(.76)
	Female	207	3.79(.95)	3.54(.92)	3.49(1.09)	3.89(.94)	3.69(.88)
	t		1.80	1.39	.27	-.22	1.25
standard of living	High	133	4.01(.88) ^a	3.77(.88) ^a	3.71(1.00) ^a	4.24(.88) ^a	3.94(.80) ^a
	Middle	228	3.86(.84) ^a	3.61(.83) ^a	3.48(1.01) ^a	3.85(.82) ^b	3.73(.77) ^a
	Low	62	3.53(.99) ^b	3.20(.97) ^b	3.08(1.16) ^b	3.15(1.01) ^c	3.32(.93) ^b
	F		6.09**	8.86***	7.93***	33.11***	12.43***
Father's education achievement	Middle school and less	7	3.42(1.23) ^b	3.07(1.39) ^b	2.77(1.29) ^b	3.36(1.41)	3.21(1.21) ^b
	High School grad	157	3.80(.87) ^{ab}	3.53(.83) ^{ab}	3.37(.98) ^{ab}	3.81(.93)	3.66(.78) ^{ab}
	University grad	229	3.89(.89) ^{ab}	3.62(.90) ^{ab}	3.56(1.04) ^a	3.94(.90)	3.78(.83) ^{ab}
	Graduate and more	30	4.24(.76) ^a	3.97(.74) ^a	3.86(1.05) ^a	4.15(.98)	4.12(.73) ^a
	F		2.72*	3.01*	3.42*	2.15	3.73*
Mother's education achievement	Middle school and less	9	3.42(.80) ^b	3.15(.74) ^b	3.13(1.01) ^b	3.47(1.07) ^b	3.31(.60) ^b
	High School grad	226	3.76(.91) ^{ab}	3.49(.89) ^{ab}	3.35(1.00) ^{ab}	3.74(.97) ^{ab}	3.62(.83) ^{ab}
	University grad	162	4.01(.83) ^a	3.72(.82) ^a	3.68(1.03) ^a	4.05(.85) ^a	3.89(.78) ^a
	Graduate and more	24	3.97(.84) ^a	3.76(.95) ^a	3.62(1.14) ^a	4.23(.85) ^a	3.93(.83) ^a
	F		3.61*	3.33*	3.68*	5.11**	4.77**

* p<.05, ** p<.01, *** p<.001, Duncan grouping : a>b>c

Table 5. Examining differences in self-control according to sociodemographic variables

N=438

Variables	Category	N	Long-term satisfaction pursuit	Immediate satisfaction pursuit	Self-control
Gender	Male	229	3.31(.66)	2.75(.74)	3.28(.48)
	Female	207	3.19(.54)	2.61(.56)	3.29(.45)
	t		2.12 [*]	2.31 [*]	-.21
Standard of living	High	132	3.31(.65)	2.76(.72)	3.27(.43)
	Middle	228	3.23(.57)	2.65(.62)	3.29(.48)
	Low	62	3.26(.66)	2.66(.72)	3.29(.51)
	F		.79	1.13	.05
Father's education achievement	Middle school and less	7	3.19(.48) ^b	2.56(.33)	3.31(.30)
	High School grad	157	3.17(.62) ^b	2.68(.64)	3.25(.47)
	University grad	229	3.27(.59) ^{ab}	2.70(.69)	3.29(.45)
	Graduate and more	29	3.56(.62) ^a	2.60(.73)	3.48(.58)
	F		3.50 [*]	.30	2.10
Mother's education achievement	Middle school and less	9	3.43(.62)	2.41(.54)	3.51(.54)
	High School grad	226	3.21(.58)	2.67(.64)	3.27(.44)
	University grad	162	3.30(.63)	2.71(.70)	3.29(.49)
	Graduate and more	23	3.29(.60)	2.63(.72)	3.33(.59)
	F		.88	.67	.85

* p<.05, Duncan grouping : a>b>c

먼저, 가족존중 및 애정과 역할공유 및 문제해결력, 의사소통 및 유대감, 가족건강성 전체는 생활수준, 부학력, 모학력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생활수준이 낮은 경우, 모학력이 중학교 졸업이하인 경우에 가족존중 및 애정, 역할공유 및 문제해결력, 가족건강성 전체 점수는 낮았고, 부학력이 대학원 졸업인 경우 가족존중 및 애정과 역할공유 및 문제해결력, 가족건강성 전체 점수는 높았다. 재정적 안정은 생활수준과 모학력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생활수준이 낮은 경우, 모학력이 중학교 졸업이하인 경우에 재정적 안정은

낮았다.

3)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자기통제력의 차이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자기통제력의 차이는 <Table 5>와 같다.

먼저, 장기 만족 추구는 성별과 부학력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부학력이 대학원 졸업인 경우에 긍정적인 성향의 자기통제력이 높았다. 즉각 만족 추

Table 6. The Relation of self-control According to the peer support, family strength

Scale	Variable	Self-control
Peer support	Emotional support factors	.08
	Evaluation support factors	.09
	Informational support factors	.09
	Material support factors	.08
Family strength	Family respect and affection	.18 ^{***}
	Role sharing and problem solving	.25 ^{***}
	Communication and family bonding	.28 ^{***}
	Financial stability	.22 ^{***}

*** p<.001

구는 성별에 따라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부정적인 성향의 자기통제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친구지지, 가족건강성과 자기통제력 간의 관계

친구지지, 가족건강성과 자기통제력 간의 관계는 <Table 6>과 같다.

친구지지와 가족건강성, 자기통제력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자기통제력은 가족건강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였고 친구지지에서는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가족건강성은 하위영역인 가족존중애정($r=.18, p<.001$), 역할공유($r=.25, p<.001$), 의사소통($r=.28, p<.001$), 재정안정($r=.22, p<.001$) 네 영역 모두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즉, 가족이 서로 높은 존중과 애정을 보이면서 역할을 공유하고, 의사소통이 원활히 되며 재정적인 안정이 이루어졌을 때 자기통제력도 높았다.

4.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친구지지, 가족건강성이 자기통제력에 미치는 영향력

고등학생의 자기통제력에 대한 사회인구학적변인과 친구지지, 가족건강성의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3단계에 걸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회귀가정의 만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VIF (Variance Inflation Factor)계수와 DW(Durbin Watson)계수를 조사하였다. VIF는 1.01-4.29로 10이하이므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고, DW계수도 2에 가까워 잔차 간 자기 상관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회귀가정은 만족스럽다고 볼 수 있다.

자기통제력에 대한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7>과 같다.

모델 I은 사회인구학적 변인인 성별, 생활수준, 부학력, 모학력을 회귀모형에 투입하였다.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2%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Table 7. Examining influence of sociodemographic variables, peer supports and family strengths on the self-control

N=438

Scale	Variables	Model I		Model II		Model III	
		B	β	B	β	B	β
Sociodemographic Variable	Gender	-.02	-.02	.00	.00	-.04	-.05
	Standard of living	.01	.02	.02	.03	-.02	-.03
	Father academic ability	.09	.12*	.09	.11*	.08	.11*
	Mother academic ability	-.04	-.05	-.04	-.05	-.06	-.08
Peer support	Emotional support factors			-.11	-.17	-.10	-.17
	Evaluation support factors			.11	.19	.08	.12
	Informational support factors			-.01	-.02	-.00	-.00
	Material support factors			.12	.20*	.07	.13
Family strength	Family respect and affection					.04	.08
	Role sharing and problem solving					.16	.30***
	Communication and family bonding					.08	.18*
	Financial stability					.04	.08
R ²		.02		.07		.15	
F		1.36		3.52***		5.44***	
DW		1.87		1.90		1.82	

* $p<.05$, *** $p<.001$

Dummy variables : Gender(1:Male, 0:Female)

모델 II는 친구지지인 정서적 지지, 평가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를 추가로 투입하였다. 이에 전체 설명력은 7%로 증가하였으며, 친구지지를 추가한 회귀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F=3.52, p<.001$). 친구지지 변인의 상대적 기여도는 5%로 나타났으며, 친구지지 변인 중에서 물질적 지지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beta=.20, p<.05$). 즉 친구로부터 물질적인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자기통제력이 높았다.

모델 III은 모델 II에 가족건강성 변인을 추가로 투입하였다. 모델 III의 전체 설명력은 15%로 증가하였으며($F=5.44, p<.001$), 가족건강성 변인의 상대적 기여도는 8%로 나타났다. 가족건강성 변인 중 역할공유 및 문제해결력($\beta=.30, p<.001$)과 의사소통 및 가족유대($\beta=.18, p<.05$)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즉 가족들과 서로 역할을 공유하고 가족 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가질수록, 의사소통이 원활하고 가족 간 유대가 좋을수록 자기통제력이 높았다. 하지만 가족건강성 변인이 추가로 투입되면서 물질적 지지의 유의미한 영향력은 상쇄되어 없어졌다.

모델 III을 중심으로 자기통제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면, 역할공유 및 문제해결력($\beta=.30, p<.001$)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의사소통 및 가족유대($\beta=.18, p<.05$), 부학력($\beta=.11, p<.05$)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족이 서로 역할을 공유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지니며,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가족 간 유대가 좋을수록,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자기통제력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IV. 결론

본 연구는 남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친구지지, 가족건강성과 자기통제력의 관계를 분석하여 청소년들의 자기통제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등학생들은 친구지지 중 정서적 지지를 가장 높고,

물질적 지지를 가장 낮게 인식하였으나 친구지지 하위 영역 모두 중간값 보다 높았다. 가족건강성은 하위 영역 모두에서 중간값보다 높은 점수를 보여 고무적이었으나, 가족존중 및 애정, 역할공유 및 문제해결력, 재정적 안정에 비해 의사소통 및 유대감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는 고등학교 시기가 입시 준비로 인해 가족들과의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 보여지며, 가족 간에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해 의사소통 및 유대감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가족건강성을 연구한 Lee(2012)의 연구에서 의사소통 및 유대감이 가장 낮게 나온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자기통제력은 긍정적인 성향을 나타내는 장기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정도가 중간값 이상의 점수를 보이고, 부정적인 성향으로 해석되는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정도는 중간값 이하의 점수를 보였다. 이는 고등학생들이 장기 만족을 추구하고, 즉각적이고 단기적인 만족은 억제하는 바람직한 태도를 지닌 것이라 할 수 있다. 많은 연구들(Harrison, Jones, & Sullivan, 2008; Ko, 2005; Min, 2005; Ozbay, 2007)에서 자기통제는 외현적인 문제행동 뿐만 아니라 내면적인 문제와도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소년기에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행동을 예방하고 자신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자기통제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정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왜냐하면 청소년기에 미래를 내다보고 현재의 고통을 참아내는 것은 개인의 성장과 성공을 위하여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이다(Muraven, Rosman, & Gagne, 2008).

둘째,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친구지지, 가족건강성, 자기통제력의 차이를 살펴보면,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부학력이 대학원 졸업인 경우 정서적 지지가 높았고, 평가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즉 여학생이 친구지지를 높게 받는다고 평가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에 비해 또래지향적인 성향이 있어 나타난 결과라 볼 수 있다. 생활수준이 낮은 경우, 모학력이 중학교 졸업이하인 경우에 가족존중 및 애정, 역할공유 및 문제해결력, 가족건강성 전체 점수는 낮았고, 부학력이 대학원 졸업인 경우 가족존중 및 애정과 역할공유 및 문제해결력, 가족건강성 전체 점수는 높았다. 또한 생활수준이 낮은 경우, 모학력이 중학교 졸업이하인 경

우에 재정적 안정은 낮았다. 낮은 생활수준은 가족건강성을 낮추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결과이다. 자기통제력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긍정적인 성향의 자기통제력과 부정적인 성향의 자기통제력 모두 높았고, 부학력이 대학원 졸업인 경우에 긍정적인 성향의 자기통제력이 높았다.

셋째, 변인간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가족건강성과 자기통제력 사이에 유의한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친구지지와 자기통제력 사이에는 유의한 상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즉, 가족이 서로 높은 존중과 애정을 보이면서 역할을 공유하고, 의사소통이 원활히 되며 재정적인 안정이 이루어졌을 때 자기통제력도 높았다. 가족건강성 중 의사소통 및 유대감과 자기효능감과의 상관관계는 다른 가족건강성 하위 영역 보다 더 연관되었다. 이는 가족의 불화 정도가 높고, 부모 자녀 간 의사소통이 개방적이지 못한 가족의 환경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들이 낮은 자기통제력을 가지게 된다는 Nam과 Ok(2001)의 연구나 부모-자녀 애착정도가 높은 학생들의 자아통제력이 높게 나타난 Mun과 Han(2008)의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라 하겠다.

넷째, 자기통제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면, 역할공유 및 문제해결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의사소통 및 가족유대, 부학력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족이 서로 역할을 공유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지니며,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가족 간 유대가 좋을수록,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자기통제력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친구지지가 자기통제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자기통제력에 대한 친구의 영향력은 나타나지 않았다. 청소년기가 사회적 관계 중에서도 친구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시되는 시기이며 많은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기는 하나 자기통제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은 가족과의 긍정적인 특성에 해당되는 가족건강성의 효과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나 가족건강성을 투입하지 않은 단계의 자기통제력에 대한 관련변인들의 영향력에서는 친구의 물질적 지지가 자기통제력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가족건강성을 투입한 단계에서는 그 영향력이 소멸된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등학생의 자기통제력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가족건강성 중 역할공유 및 문제해결력이었다. 가족 간의 역할을 서로 나누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족원들이 갖고 있다는 인식은 청소년의 자기통제력과 많은 관련이 있는 중독이나 비행과 같은 다양한 행동 문제를 줄이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하겠다. 따라서 학교나 사회에서 청소년의 문제 행동을 다룰 때 자기통제력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가족건강성을 증진할 수 있는 요소들을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가족 역할 공유 및 문제해결력 향상을 위해 의도적으로 다양한 가족 활동에 가족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역할을 나눔으로써 가족원으로서의 소속감을 느끼며 가족건강성을 높이게 되면 자녀 스스로 자신의 심리적 특성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친구지지는 고등학생의 자기통제력에 관련되지 않았다. 또한 가족건강성을 통제하고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물질적 친구지지만이 영향을 미쳤으나 가족건강성을 투입한 모델에서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즉 가족건강성이 친구지지 보다 자기통제력에 관련이 됨을 알 수 있다. 청소년기에 친구의 영향력은 중요하나 그 보다 가족의 영향력이 더 큼을 보여주는 결과라 하겠다. 가족 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하도록 가정과 교육을 강화하며 청소년 교육에서 가정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가정의 기능을 강화하는 다양한 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 나아가 사회에서도 고등학생의 자기통제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새로운 교수법 및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고등학생의 가족건강성 중 의사소통 및 가족유대는 자기통제력과 관련성이 가장 높은 요인이었으나 고등학생들이 인식한 점수는 가족건강성 중 가장 낮았다. 의사소통 및 가족유대가 자기통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강화되어야 하나 실제로는 가장 부족한 가족건강성 영역임이 드러난 것으로 가족 간 의사소통과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건강 가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구상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더불어 가족에 대한 가치 교육과 사회문화운동을 통한 가족문화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며 청소년 혹은 청소년기 가족을 대상으로 의사소통 및 가족 간 유대를 위한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넷째, 가정과교육은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청소년이 주도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가치관과 다양한 능력을 기르는데 도움을 주는 실천 교과이다. 그런 의미에서 자주적으로 자신의 생활을 관리하고 가족과 함께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하며 이웃과 더불어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인 청소년의 자기통제력은 실천적 인간으로의 목표를 지향하는 가정과교육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보아 본 연구는 의미가 있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는다.

첫째, 본 연구는 표집방법에서 편의표집을 했고, 지역적으로도 광주광역시에 한정되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모집단에 대한 대표성을 갖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연구결과를 일반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선표집을 통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연구의 대상이 고등학교 학생들에게만 국한되었기 때문에 발달단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기 못하였는데, 초등학생, 중학생과 대학생 등을 함께 조사함으로써 비교연구가 가능하리라 본다.

셋째, 친구관련 변인 중 친구지지, 가족관련 변인 중 가족건강성만을 변인으로 채택하여 자기통제감을 연구하였으므로 이후 연구에서는 좀 더 확대하여 생태체계 변인들이 포함된 포괄적 연구를 통해 자기통제감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Ahn, S. H., & Kim, S. Y. (2004). The relationships between family strengths, mothers' self-efficacy and children's social behavior.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2(12), 219-230.
- Back, H. J. (2009). The mediating effect of parental support and self-control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adolescents' home-environment and juvenile delinquencies.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 Psychology*, 22(4), 37-56.
- Bagwell, C. L. (1998). Preadolescents friendship and peer rejection as prediction of adult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9, 140-153.
- Cho, J. Y., & Doh, H. S. (2011). Pathways from interparental conflict to adolescents' problem behavior through maternal support and control and quality of peer relationship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32(2), 15-34.
- Furman, W., & Buhrmester, D. (1985). Children's conceptions of personal relationships in their social networks. *Developmental Psychology*, 21, 1016-1022.
- Han, M. H., & You, A. J. (1996). The relation of stress and perceived social support to problem behavior.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17(1), 173-188.
- Harrison, M. L., Jones, S., & Sullivan, C. (2008). The gendered expressions of self-control: Manifestations of noncriminal deviance among females. *Deviant Behavior*, 29, 18-42.
- Jang, H. J. (2008). *The relationships among social support, gender role identity, self-control and aggression of middle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Jang, S. W., & Kim, O. J. (2011). The effects of school adjustment and self-control on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of adolescents.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for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1(3), 159-179.
- Jeon, Y. J., & Seo, M. Y. (2006). High-school students' internet addiction and related variables.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4(3), 13-25.
- K, J. H., & Lee, E. H. (2007). The effects of impulsivity, parent's child-rearing attitude,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and self-control on adolescent problem behavior, *Studies on Korean Youth*, 17(1), 325 ~ 351.
- Kanfer, F. H. (1997). The many faces of self-control, or behavior modification changes its focus, in P. B. Stuart(Ed.), *Behavior self-management*, NY: Brunner/Mazel, 1-48.
- Ki, K. D. (2011). The effect of self-control on victimization of

- children.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Victimology*, 19(2), 97-117.
- Kim, D. S., & Min, S. H. (1996). *The effect of low self-control upon crime and delinquency*.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Seoul, Korea.
- Kim, I. S., & Lee, K. N. (2004). Parent attachment, peers support and behavior problems of middle school students.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7(2), 97-113.
- Kim, J. E. (1998). *An analysis of factors affecting adolescent delinquenci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 Kim, N. S. (2002). *The study on internet addiction of middle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 Kim, Y. H., & Park, K. J. (2001). Relationships among children's perceived social support, locus of control, and self-esteem. *The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2(2), 49-64.
- Ko, J. J. (2005). The effect of parental monitoring and adolescents' self-control on adolescents' problem behavior,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3(2), 1-17.
- Kwon, J. H., & Lee, E. H. (2006). The effects of impulsivity, parent's child-rearing attitude,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and self-control on adolescent problem behavior. *Studies on Korean Youth*, 17(1), 325-351.
- Lee, G. W. (2001). *The study on internet addiction of adolescen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Lee, K. H. (2012).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strengths and life satisfaction perceived by adolesc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Gwangju, Korea.
- Lee, K. J., & Shin, H. S. (1997). Adolescents' maladjustment in terms of type and source of social support.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15(4), 15-26.
- Lee, S. J. (2009). The effects of family strengths and influencing variables on perceptions of parenthood among the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family relations*, 14(1), 243-266.
- Min, S. H. (2005). Juvenile delinquency and disciplinary punishment at school as consequences of low self-control.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2(2), 1-15.
- Mun, Y. S., & Han, S. J. (2009). Impact of parent-adolescent attachment and self-control on problem behavior in middle school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5(2), 302-310.
- Muraven, M., Rosman, H., & Gagne, M. (2008). Lack of autonomy and self-control : Performance contingent rewards lead to greater depletion. *Motivation and Emotion*, 31, 322-330.
- Nam, H. M., & Ok, S. W. (2001). The effects of psychological family environment, self - control and friends characteristics of middle schools students on their problem behaviors.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39(7), 37-58.
- Ozbay, O. (2007). Self-control, gender, and deviance among turkish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Criminal Justice*, 36, 72-80.
- Park, H. S. (2012). Stability of self-control and effects of situational factor on the juvenile delinquency at the level of low self-control,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89, 385-418.
- Park, Y. S., Kim, E. C. & Min, B. K. (2002). The influence of parental social support on self-efficacy and life-satisfaction : A longitudinal analysis of Korean adolescents.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6(2), 63-92.
- Shim, R. H. (2004).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et addiction and self-efficacy, self-control, parent-child relationship and peer relationship*.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cheo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Gangwon, Korea.

Song, W. Y. (1998). *Effects of self-efficacy and self-control on the addictive use of internet*.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Wallston, K. A., Wallston, B. S., Smith, S., & Dobbins, C. J. (1987). Perceived control and health. *Current Psychology*, 6, 5-25.

<국문요약>

본 연구는 고등학생이 인식하는 친구지지, 가족건강성과 자기통제력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자기통제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며 가정과 학교에서 고등학생을 지도하는 데 있어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등학생들의 친구지지와 가족건강성은 중간값(3.0)보다 높았고, 자기통제력 중 장기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정도는 중간값보다 높고,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정도는 중간값보다 낮았다.

둘째, 친구지지는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고, 가족건강성은 생활수준과 부모의 학력에 따라 부분적으로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자기통제력은 성별과 부학력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셋째, 가족건강성과 자기통제력 사이에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친구지지와 자기통제력 사이에는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넷째, 자기통제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은 역할공유 및 문제해결력, 의사소통 및 가족유대, 부학력이었으며, 이 변인들은 자기통제력을 15% 설명해 주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살펴볼 때 고등학생의 자기통제력에는 가족건강성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정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가족 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하도록 가정과교육을 강화하며, 고등학생의 자기통제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 논문접수일자: 2013년 07월 08일, 논문심사일자: 2013년 07월 10일, 게재확정일자: 2013년 09월 09일